

개인 文集을 통해서 본 醫學人物의 行蹟

이선아,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Abstract

The Episodes of Some Herbalists

Described in the Various Anthologies in Joseon

This paper examines the episodes of some herbalists described in the various anthologies in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the kernels of the stories, which have still considerable influence upon oriental medicine in my opinion, will be arranged in narrative style. Not to mention, it was not rare that in someone's huge collection of works only a few lines of clinical diagnosis and prescriptions could be found. But they are invaluable. In this respect, we are very fortunate in having medical contents in the anthologies such as Jisanjip, Igejip and Wanamjip.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terials can be used to examine the level of the medicine at that times. Second, the records of clinical diagnosis and prescriptions in the anthologies are precious even at the present time.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herbalists of Joseon had handed down their remedies and also inherited at any forms. And most important, they had added their own recipes to that.

I. 서론

역사상에는 훌륭한 학문과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빛이 후세에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버리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 물론 역사상의 어느 한 인물에 대하여 평가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시기에 따라, 또 그 평가하는 사람의 학문적 소양이나 역사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사실 사람에 따라 보여지는 평가기준이 다 달라, 어느 경우는 극에서 극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시대의 경우 그 '인물'의 평가 기준은 家門이나 仕宦 등의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여 국가 및 사회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들이다. 물론 그 기준은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헌을 한 사람들이나 하는데에 있지만, 첫째는 官界에서 관직자로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 밖에도 순수한 學者로서, 혹은 孝나 忠節과 같은 덕행의 실천자로서, 혹은 학문의 전수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겠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역사의 뒤편에 감추어진 醫家로서 醫學者로서 뛰어난 의술을 펼치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흔적들을 몇 개의 흩어져 있는 글을 통하여 혹은 문집을 통하여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문집 등에 단지 몇 줄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하여 조선조 사회의 이름없는 醫家人物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특히 당시 실질적인 의술과 경험방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의 이야기만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는 현재 18세기 학자들의 문집에 기록되어 있는 의가인물들을 자료로 하였다.

II. 韓致明의 문집인 『芝山集』에 나오는 사례

필자는 淳昌출신 학자 韓致明(1703~1788)의 문집인 『芝山集』¹⁾에서 중기를 전문적으로 치료한 의원인 金龍甲에 관한 이야기와 또 일종의 경험방이라고 볼 수 있는 글이 실려 있기에 소개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腫醫金龍甲傳」과 「養精頤神術」을 남긴 韓致明은 1740년(英祖 16)에 生員試에 합격한 사람으로, 1710년(숙종 36)에 생원시 합격자요 역시 학자로서 이름이 있었던 韓泰章(1659~1732, 號는 永懷齋)의 아들이다. 本貫은 淸州이며 조선시대 후기에 순창지방의 대표적인 士族가문의 하나로서 알려

1) 『芝山集』은 1872년(고종 9)에 木活字本 3권 3책으로 간행되었으며, 또 최근에 옥천향토문화연구회에서 엮어낸 『玉川文集叢刊』 제 1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진 이른바 ‘갑동한씨’에 속하는 인물이다. 갑동은 오늘날의 淳昌郡 仁溪面 甲洞이다. 號를 芝山이라고 한 그는 학자로서도 매우 유명하여 1760년에 『淳昌邑誌』를 편찬할 때 그 주역을 맡기도 하였다. 이 『淳昌邑誌』는 이름을 『玉川誌』라고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고 또 풍부하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읍지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바, 韓致明은 이 『玉川誌』의 편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서문도 붙였다.

1. 韓致明이 전하는 腫醫 金龍甲에 관한 이야기

韓致明의 문집인 『芝山集』에는 의술에 관련된 실제 인물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데 그가 비록 훌륭한 醫學者라거나 또는 그가 치료한 宗기치료 經驗方이 최고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것도 역시 간접적으로는 의술을 가진 어느 한 인물이 치료에 임하는 기본 철학 내지 기본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한치명이 남긴 글의 제목은 「腫醫金龍甲傳」이다.

이 제목에 나오는 腫醫란 말할 것도 없이 腫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를 뜻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분류에 따른다면 일반외과에 속하는 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종양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였던 의사이다.

韓致明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金龍甲은 우연한 기회에 이른바 ‘治癰之術’을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해 동안 전심전력한 결과 이 ‘治癰’의 분야에 있어서는 가위 神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가 치료에 착수만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탁월한 효과를 보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아주 유명한 腫醫로써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金龍甲이 그러한 경험에서 얻은 치료의 원칙론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腫氣의 치료에 있어서는 和平簡易의 자세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剝割針刺의 고통 즉, 칼로 찢고 침을 놓는 데에 따른 고통이 없기 마련이다. 종기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먼저 찢은 부위를 덜어내는 데 좋은 약을 쓸 것이요 이어서 새살을 돋게 하는 약을 씌으로써 그 종기의 고통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고 그 종양의 독기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에 단단하게 응결되었던 곳이 점차 변해서 부드럽고 윤택하게 되며, 전에 푸르고 검었던 부위가 점차 새살로 바뀌어지기 마련이다.

韓致明에게 이와같이 말한 腫醫 金龍甲은 또, 腫氣가 생기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혈기가 응체하게 되고 담액이 울결하게 되면 경락이 통하지를 못하게 되고, 주리가 역시 퍼지를 못하여 독기가 모이게 된다. 그 결과 그 부위가 단단해지며 또 더러운 기가

뭉치게 되어 그 부위가 적흑색이 된다. 이 때에 보통 범속한 의원들이 그 단단해지고 적흑색으로 변한 부위를 악성의 근육이라고 보고 이것을 독약으로써 썩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칼로써 도려낸다. 독약을 써서 썩게 한 후에도 미진한 것이 남아서 다시 굳어지게 되면 이것을 또 도려내는데 그러나 또 악한 부분이 살아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끝내는 사람을 해치게 된다. 결국 그 범속한 의원들은 그 단단한 부위도 원래 나의 부드러운 피부가 변해서 나타난 것이요, 그 청흑색으로 된 부위도 원래는 나의 부드럽고 윤택한 살갓이 변해서 된 것이니 거기에서 毒氣와 惡氣를 빼고 줄이면 그게 모두 다 나의 소중한 피부요 근육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이를 도려내거나 그 부위를 썩히려고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비유한다면 백색의 비단에 더러운 물이 묻었을 때 그 더러운 물을 씻어내는데, 노력하면 본래의 비단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거울 표면에 먼지가 묻었을 때 그 먼지를 씻어내면 본래의 깨끗한 거울이 도로 회복되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고 혹은 그 비단을 불태우고 혹은 그 거울을 깨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金龍甲의 이야기를 이상과 같이 전한 韓致明은 그가 말하는 ‘治癰之術’이야말로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治國之王道’라고 감탄하며 그 ‘治國之王道’에 대한 이야기를 부연하고 있다. 한치명이 전하는 金龍甲의 이야기는 전통시대의 의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어서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치료 경험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참고할만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金龍甲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오늘날의 지극히 발달된 현대외과술이라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그 가치를 평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이 한치명이 생존하였던 18세기의 지극히 어려웠던 상황속에서 어느 한 의원에 의해서 온갖 암중모색의 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된 치료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韓致明 자신이 말하는 또 하나의 事例인 ‘養精頤神之術’

어떤 의가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건 민간요법이 되었건 성실한 의원이 경험한 것이라면 그 내용들이 소략한 것일지라도 남겨진 것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짧고 간단한 내용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소개하려는 韓致明의 ‘養精頤神之術’은 그것이 전문적인 의원에 의한 경험담이 아닌 유학자의 경험담이었다는데에 특징이 있다. 韓致明의 한 유학자로서의 업적은 그 문집인 『芝山集』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 여기서 소개하려는 그 ‘養精頤神之術’은 위 『芝山集』 권5에 나와 있다. ‘養精頤神’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精을 기르고 神을 기른다는 뜻이다. 그가 글의 제목을 ‘養精頤神’이라고 한 것은 養精과 頤神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덕택으로 자기는 장수를 누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 그가 말하는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韓致明 자신은 저녁식사 후에는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 원칙으로 정하고 그 원칙을 평생토록 충실하게 지킨 결과 크게 건강상으로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실지로 그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장수를 누린 사람이다. 그는 86세의 장수를 누렸으며, 그의 부인도 역시 장수를 누리 芝山과 같은 해에 享年 87세로 생을 마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말년에 슬하에 아들 손자 및 증손자들의 수가 모두 20여명에 이르렀는데 이들 중 하나도 중년에 참변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이들 이외에 출생직후에 실패한 아이들이 몇이 있으나 자란 후에 참변을 당한 일이 없다는 것을 芝山 자신이 밝히고 있다.

아무튼 芝山 韓致明은 저녁식사 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자기 특유의 건강법으로 지켰다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기에 앞서 養精과 頤神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어려서부터 질병이 많았고 근력이 매우 약했으며 또 심성이 아주 조급하고 사나워 참지를 못하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하였기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께서 늘 훈계말씀을 하시기를,

“마음이란 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暴怒之氣²⁾는 마치 불이 처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만일 본인이 그것을 노력해서 그 마음을 억제하고 참고 또 참으면 끝내는 그 火氣가 스스로 가라앉기 마련이다. 즉, 불이 발하였을 때에는 그 불꽃이 아주 성하지만, 이것을 억제하고 누르면 그 불이 점차 꺼지기 마련이며 그때에 이를 끄고 또 끄는 노력을 하면 심성이 화평을 찾게 된다. 그리하여 심성이 화평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록 성낼만한 일을 당하여도 이성을 잃을 정도의 흥분과 격분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법이니 이것은 비단 군자로서 필요한 정신 수양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였다.³⁾

위에서 芝山 韓致明이 말하는 ‘養精頤神術’의 핵심은 저녁식사후로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芝山の 아버지가 芝山에게 일러준 방법이라고 한다. 芝山の 아버지는 이름이 韓泰章이며 號를 永懷齋라 하였고 역시 학자로서 이름을 남긴 인물로 비록 분량이 적기는 하나 『永懷齋遺稿』라는 문집이 남아 있다. 영회재는 그 당시의

²⁾ 폭로지기란 극렬하게 흥분하여 성을 내는 기운을 말한다.

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余少多疾病 筋力甚弱 心性又燥暴 不能堅忍 吾先考嘗戒之 曰心猶火也 暴怒之氣 如火始然 而人能強制其心 忍之又忍 則自然止息 夫火發之 則光炎益熾 止而息之 則火漸消滅 消之又消 則心性和平 雖有可怒之事 而不至於顛倒暴厲之境 此非但君子操心之一道也 乃一身頤養之良方也

모든 선비가 그러하였듯이 일찍부터 학문을 닦아 그의 나이 56세때인 1710년(숙종 36)에 生員에 합격을 한다. 그는 生員에 합격한 후로도 말년에 이르기까지 文科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永懷齋 자신도 그 당시로서는 장수를 누린 편이었다. 그는 1732년(영조 8)에 향년 74세로 세상을 마친다.

아무튼 芝山 韓致明에게 저녁후로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훈계를 가르친 사람은 그 아버지 永懷齋였는데, 그는 그 이야기를 당시 金堤에 살고 있던 자기의 사돈 李拜昌씨한테서 들었다고 한다. 즉, 영회재가 어느해에 金堤에 사는 사돈 이씨를 찾아가서 그 집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는데 밤중에 심한 갈증을 느껴 주인더러 ‘熟冷’⁴⁾을 찾았더니 그 이씨가 대답하기를,

우리집안은 본래 밤에 熟冷을 마시는 법이 없네. 그래서 방안에 熟冷을 준비하는 일이 없네.

라고 말하고 이어 꾸짖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그대 집안의 獨子인데 어찌 그렇게 목숨을 재촉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사람이 밤에 승냉을 마시면 痰을 성하게 만들어 목숨을 단축시키는 것이니 이것은 養生法에 있어 가장 크게 금지하는 것이네. 어찌 그대는 그것을 모르는가⁵⁾

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영회재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갈증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이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식 식사때마다 그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부터는 음식을 될 수 있는대로 싱겁게 먹으며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승냉을 마시되 충분히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꺼번에 마셔서 더 이상은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점차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서 밤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뉴월의酷暑속에서도 식사때를 제외한 시간중에는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게 된다.

위의 말을 들은 후로 영회재는 그 훈계를 아주 충실하게 지켰다고 한다. 즉, 어떤 식사가 되었든 그 식사가 끝날 무렵부터는 되도록 짠 것은 먹지 않고 되도록 식사 후 물을 마실 때는 아주 흡족하게 마시라는 그 훈계를 충실하게 지킨 결과, 열흘이 못되어 밤에 갈증을 느끼는 일이 없게 되었고 그 후로는 종신토록 ‘과외의 물’을 마시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경험을 쌓은 영회재는 자기 아들 韓致明에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일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芝山 韓致明은 어려서 그 아버지로부터 첫째는 매우 사나웠던 성질을 누르는

4) 숙냉은 우리가 말하는 승냉이다.

5) 汝以汝家獨子 何爲此 促壽之事耶 嘖嘖歎惜 曰人夜飲熟冷 則助痰促壽 此乃養生之大禁也 汝不知耶

법에 대한 교훈을 되풀이하여 받았고, 둘째는 식사 및 음수와 관련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교훈을 받은 후로부터 그것을 아주 충실하게 지켜서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 힘든 일을 하여도 냉수 한 모금을 마시는 일이 없었으며, 포식을 하게 되지 않고 의복도 지나치게 두껍게 입지 않는 버릇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밖에도 위험한 일은 되도록 피하는 동시에 언제나 심성을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로 지켜 가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芝山이 ‘養精頤神之術’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경험담을 쓴 것은 그의 나이 83세 때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韓致明의 경험담은 일종의 경험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의 經驗方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건강유지법으로서 크게 효과가 있었던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경험방의 하나로서 받아들여 검토할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험방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확인한 그 사람 개인의 처방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결코 일률적인 적용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같은 성격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같은 처방의 약으로써 틀림없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현실이고 보면 여기에서 소개한 위 이야기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Ⅲ. 洪良浩의 문집인 『耳溪集』에 나오는 사례

耳溪 洪良浩는 1724년(경종 4) 윤 4월 26일에 출생한 인물로서 그의 호는 耳溪이며 字는 漢師이고 1802년(순조 2) 1월 15일 졸하였다. 시호는 文獻이다. 그는 유명한 永安尉 洪柱元和 貞明公主의 玄孫이요 萬恢의 증손이다. 그의 父 鎭輔와 祖 重聖도 학자로서 이름이 있었다. 永安尉 洪柱元는 자손이 잘된 사실 때문에도 유명한 인물이다.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예조판서를 지낸 萬容, 역시 文科에 급제하여 校理를 지낸 萬衡이 다 그의 아들이며, 역시 문과에 급제하여 左相을 지내고 正祖의 외조요 혜경궁 洪氏의 아버지인 鳳漢, 문과출신이며 우상을 지낸 麟漢, 生員과 文科에 급제하여 大提學을 지낸 耳溪 良浩도 모두 그의 현손들이다. 또 그 이후로도 그의 후손은 계속 중앙무대에서 활약하였으며 조선 후기의 이른바 勢道政治로 유명한 豊山洪氏가 다 그의 후손이다. 참고로, 豊山洪氏의 이 永安尉 洪柱元의 系派는, 黃岡 沙溪로 이어지는 光山金氏와 月沙⁶⁾ 白洲로 이어지는 延安李氏, 淸陰 文谷으로 이어지는 安東金氏, 白江 西河로 이어지는 全州李氏 密城君派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1등양반으로 손꼽히는 명문가이다.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耳溪 洪良浩는 외숙인 沈鎬으로부터 陽明學을, 旅菴 申景潛에

6) 홍주원은 月沙 李廷龜의 외손이기도 하다.

계서 天文學, 地理學을 영향받았다. 그는 1752년(영조 28)에 文科에 급제하여 持平, 修撰, 校理를 지낸 뒤 대제학을 지냈다.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英祖實錄』, 『國朝寶鑑』, 『養墻錄』, 『同文彙考』 등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에는 治山, 植樹에 주력하였다. 글씨에도 능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곡산의 神德王后私第舊基碑와 水原城의 北門樓上樑文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1. 洪良浩가 전하는 鍼醫 趙光一에 관한 이야기

『耳溪集』⁷⁾에 나오는 「鍼醫 趙光一傳」에서 耳溪는, 집안이 가난하여 객지로 나와 충청도와 전라도의 접경지대인 서해안 기슭에서 우거하면서 침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조광일과 얽히게 된 사연부터 밝히고 있다. 耳溪는 그의 나이 41세인 1764년(영조 40) 가을에 洪州牧使로 임명되어 충청도로 향한다. 이때 그 지방에서 명성이 있는 醫員을 찾았지만 儒醫로 있던 조광일을 만나게 되는데, 耳溪는 당시의 상황을 “그 지방 사람에게 의원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훌륭한 의원은 없다. 다만 굳이 말한다면 趙生이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耳溪가 만난 조광일은 집안의 가난으로 고향을 등지고 타향에 와서 천시당하는 의원 노릇을 하면서도 전혀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았고 또 당시의 다른 많은 선비들처럼 벼슬에 뜻을 두고 과거 공부를 하여 금의환향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어느날 조용히 물어보았다. “의원은 천하게 여기는 기술이고 또 이곳은 궁벽진 시골인 가난한 곳이 아닌가? 자네의 의술이면 부자들이나 고관대작들과 사귀어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시골 가난한 백성들과 어울리는가? 어찌서 자신의 의술을 높이지 않는가?”라고 하니, 조광일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장부로 태어나 재상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의원이 되라고 하지 않았는가. 재상은 도로써 백성을 구제하고 의원은 기술로써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 힘써 다하면 의원이나 재상이나 공적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러나 재상은 자신을 알아주는 시대를 만나야만이 그 도를 행할 수 있어, 시대를 잘 만나면 다행일 수 있으나 잘못 만나면 불행하게 될 수 있으니, 백성들이 제때에 먹을 것을 먹게 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만 한번이라도 그렇게 되지 못하면 별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는 그렇지 않네. 그 의술로써 그 뜻을 행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네. 치료할 수 없으면 버리고 떠나면 그 뿐이고 그제 나의 과오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 의술로써 편안히 살 수가 있는 것이네. 내가 이 의술을 하는 것은 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뿐이네. 그래서 귀천을 가리지 않는 것이네.

7) 『耳溪集』은 1843년(헌종 9)에 그의 손자 洪敬模에 의하여 奎史字本 原集 38권, 外集 12권 습 22책으로 간행되었다. 권 18에 傳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鍼醫 趙光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서 조광일의 온화하고 태평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洪良浩의 한 실력있는 인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다. 洪良浩는 험험한 가문의 전통있는 집안에서 성장하여 선비는 단순히 그 자신 한 사람의 입신양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바탕에 깔고 전개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의 선비의 세계는 그들의 가문의 명성을 추락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하며 그 가문의 명성을 한층 더 높여 세상에 떨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조광일은 儒學에서는 仁을 重視하고 醫學에서는 仁術을 베풀면 그 뿐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명성에는 뜻이 없었다.

耳溪 洪良浩가 전한 趙光一은 다른 재주는 없고 오로지 침으로만 이름이 있었다. 따라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號하기를 鍼隱이라 하였다. 耳溪는 조광일이 사족가문으로서의 이름대로의 명성을 떨쳐온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실제로 가문의 명성을 취득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말하였던 것 같다. 선비는 반드시 현달하여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니 나라는 가히 의원인 재상을 얻게 된다. 그러나 힘써 하여도 현달하지 못하여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게 되면 陰陽家나 道家나 醫員이 되어 널리 제증을 구제하고 베풀게 되면 그것도 또한 재상에 버금가는 나라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어진 선비가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지 못하면 醫家에 숨어 의원이 되었다. 따라서 耳溪는 일찍부터 그런 인물들을 찾아보았지만 듣지를 못하다가 조광일을 만난 것이다.

내가 어느 날 조광일의 오막집에 간 일이 있는데, 이른 새벽에 허리가 완전히 굽은 한 노파가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나 아무개입니다. 어디 마을에 사는 백성 아무개의 에미인데 내아들 아무개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으니 제발 살려주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조광일이 즉시 말하기를 “알았다. 먼저 가시오. 나도 바로 갈 것이오”라고 대답하고 바로 일어나 그 노파를 따라 걸어가면서도 아무런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또 한번은 도량을 건너다 조광일을 만났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까지 내려 길도 질퍽거리는데 그는 이마에 거적을 뒤집어쓰고 나막신을 벗어쥐고 달리고 있었다. 그에게 무슨일이냐고 물으니, “어느 마을 백성 아무개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 내가 한번 침을 놓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오늘 다시 가서 침을 놓으려고 한다” 하였다. 내가 괴이하게 여겨 물기를, “자네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 몸소 노고를 아끼지 않고 그러는가”하니 조광일이 비식 웃으며 대답도 없이 그냥 갔다.

그러나 조광일은 세상의名利를 추구하고 경륜을 펼쳐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몸소 仁術을 실천하며 끈고한 삶을 즐겼던 것이다. 이렇듯 仁術은 말하지 않아도 환자들에게 피부로 심장으로 관통된다. 유교의 신분질서가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조광일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하였던 것 같다. 洪良浩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홍양호의 눈에 비친 조광일은 대략 이와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특이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틈틈이 왕래하다보니 친해져서 드디어 사귀게 되었는데, 그는 마음이 소탈하고 평안하고 정직하였으며 남에게도 거리낌 없이 대하였다. 자기가 좋아 스스로 의원노릇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의술은 古方에 나오는 湯藥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작은 가죽주머니를 들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길고 짧고 둥글고 모난 각각 다른 모양의 동침과 철침이 들어 있어 그것으로써 응저를 찌고 종창을 치료하고 여혈이나 막힌것을 뚫어주고 풍기를 소통시키며 절름발이나 곱사등이를 일어서게 하는데 그의 침에 응해서 바로 치료되지 않는 바가 없이 침에 완전히 정통하였다.

耳溪가 보기에 조광일은 권세가의 집에는 가지도 않고, 또 그의 집에도 현달하지 못한 사람들만 드나들었다. 조광일이야말로 조선시대에서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며 무엇보다도 愛民의 一片丹心 속에서 생애를 바친 훌륭한 醫士였다고 할 수 있겠다. 홍양호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전해준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의원은 자기가 의술이 있다고 남에게 교만하게 굴며, 문밖에 환자의 가족이 말타고 와서 여기저기를 통하여 부탁하게 하고, 집에도 술상을 차려 놓고 서너번을 청하면 그때서야 겨우 가며, 또 가더라도 귀족이나 권문세가집이나 부잣집에만 가고, 만약에 가난하거나 세도가가 아니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거절하거나 혹은 없다고 하라고 말하며 백번을 청하면 한번도 일어나지 않는 놈이네. 이것은 어찌 인술을 베푸는 사람의 인정이겠는가. 내가 전적으로 백성들과 교유하며 지내는 것은 부귀자나 권세가들을 간여하지 않고 또 이런 무리들이 보기 싫어서이고 저 현달하여 귀하게 된 자들은 우리 무리중에는 아주 소수이고 애련한 바는 오직 시골에 사는 궁색한 백성들 뿐이네. 또 내가 침쟁이 노릇을 하면서 시골사람들과 어울린지 십여년이 되었는데 하루에 몇 사람을 치료한다고 해도 한달이면 수십명을 살려내니 완전히 살려 낸 사람만 계산하여도 수백 수천명에 이를 것이네. 내 나이 지금 마흔이니 다시 수십년을 더 하면 만여명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을 만여명을 살리게 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끝나는 것이네 하였다.

나는 비로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쳐다보았다. “지금 사람들은 한 가지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세상에서 그 기술을 팔고자만 하고 남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어 병 한번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차용증서를 받아 계속 빚독촉을 한다. 세력가에게는 머리숙여 굽신거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으면 침뺄고 돌아보지 않는 세상인데 조광일은 의술은 높음에도 이름을 구하지 않고 널리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사람들이 급하면 먼저 달려가고 세력이 없는 사람을 먼저 치료하니 그 어진 마음은 속세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듣기로 천여명을 살렸다니 반드시 음덕을 받을 것이다.

이 나라에 조광일의 뒤를 잇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저자 홍양호도 후대의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역사상의 인물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명멸하다가 머지않아 완전히 소멸될 것이 아닐까 걱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지로 조광일이란 이름이 실록 등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의학계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매우 간략하게나 홍양호의 『이계집』에만 그가 시종 성실한 자세와 담담한 심정으로 치료에 임하였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자체만으로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 전문을 그대로 옮겨놓고 후일에 조광일에 대한 약력을 찾아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자 한다.

IV. 鄭來僑의 문집인 『浣巖集』에 나오는 사례

鄭來僑(1681, 숙종 7~1757, 영조 33)는 본관은 昌寧, 자는 潤卿, 號는 浣巖이다. 전통 역관 집안 출신으로 1717년(숙종 43)에 生員에 합격하였으며 1722년(경종 2) 辛壬獄事가 일어나자 가족을 이끌고 鷄籠山 浣巖谷으로 피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호를 浣巖이라 하였다. 관직은 통례원 인의, 利仁道 察訪, 승문원 제술관, 귀후서 별제를 지냈다. 출신은 비록 한미한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시문에 능하여 당대 사대부들의 추종을 받았다. 특히 1705년 譯官으로 통신사의 일원이 되어 일본에 갔을 때 독특한 시문의 재능을 드러내 더욱 명성을 얻었다. 따라서 당대의 양반의 집안에 초치되어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니 金鍾厚, 金鍾秀, 洪樂命, 洪鳳漢 등이 그에게 詩를 배운 제자들이다. 그의 시문은, 당시 國中의 최고 經史家요 시에 능하여 金昌協·金昌翁 등과 酬唱하며 그들의 칭송을 받았던, 홍세태(號는 柳下·滄浪, 본관은 南陽)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서 시와 문장이 하나같이 天機에서 나온 것과 같은 품격을 지녔다는 평을 들었다. 그의 동생 敏僑(字는 季通)도 清新하고 警拔한 시와 역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며 역시 당대 문장가들과 교류하였다.

정내교는 『완암집』⁸⁾을 남겼는데 卷4 傳에 백광현에 관한 전기가 실려 있다.

1. 鄭來僑가 전하는 腫醫 白光炫에 관한 이야기

鄭來僑의 『浣巖集』에는 「白太醫傳」이라는 제목 아래 백광현이 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다가 太醫가 되기까지의 전해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백광현은 지극히 생소하고 고단한 상황에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가 환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온정어린 모습은 실로 눈물겨운 바가 있다. 정내교는 “태의 백광현은 인조조에 가난한 집안

⁸⁾ 1765년에 목판본 4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

에서 태어났다. 사람됨이 순박하고 후덕하였으며 시골사람처럼 신실하니 바보같이 보였다.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다웠으며 눈에는 빛이 났다. 집안이 본래 가난하여 항상 굶은 삼베⁹⁾로 만든 무장들이 입던 낡은 옷을 걸치고 찢어진 갓을 머리에 겨우 붙이고 실실 웃으면서 구걸하는 거지를 따라 시장통을 돌아다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린 아이들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놀려도 광현은 웃으며 성내지 않았다. 처음에는 말의 병을 잘 고쳤는데, 본래 의서나 경험방을 읽지 않았지만 오로지 침만을 써서 고쳤다. 침을 잘 놓을 수 있게 되고 말의 병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자 사람의 종창에도 이를 시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趙顯命(1690 ~ 1752)¹⁰⁾은 『歸鹿集』에 그가 쓴 백광현의 墓表가 실려있다. 이 표에 따르면, 백광현은 字는 微叔, 本貫은 林川이며, 1625년(인조 3)에 태어나 1677년(숙종 23)에 졸하였다. 정내교가 백광현이 거친 삼베로 짠 무장들이 입던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귀족은 백광현은 어려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혀서 羽林軍¹¹⁾에 보충되었다가 말에서 떨어져 몸을 다쳐 의학에 뜻을 두었으며, 그의 醫術을 인정한 白軒 李景奭이 內醫院에 천거하여 內醫로 顯宗조부터 숙종조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御醫로 복무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林川白氏 족보에 따르면 始祖 白宇經은 신라시대 大相을 지낸 인물이며 고려시대에까지 그의 자손들도 중앙관계에 진출하여 고관을 지낸 인물들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그의 자손들은 한동안 고관이나 석학을 배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地方官署에서 한미하지만 官職으로 생애를 마쳤다. 즉, 백광현의 5대조 起宗은 白翎島 僉使를 지냈으며, 6대조는 1623년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靖社功臣의 한 사람인 守山이며, 8대조는 慶尙右水使를 지낸 時確이다. 백광현에 이르러서 그의 현달로 인해 그의 父 哲命은 僉知中樞府事를, 祖 仁豪는 左尹을, 曾祖 廣興主簿 判決事로 추증의 은전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백광현의 아들 興齡은 僉使를 孫子 弘道는 萬戶를 증손자 重圭, 玄孫 文昌등이 계속 內鍼醫를 지내는 등 비록 중하급 관직이나마 벼슬이 지속되었다. 이는 임친백씨가 백광현을 기점으로 18세기 이후 의술을 통해서 중인으로서는나마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중인 집안의 족보인 『姓源錄』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武人출신이 언제 어떠한 관계로 인해 중인집안으로 들어왔는지에 그 경위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만 한 가지, 光炫의 윗대에는 中人과의 관계되는 인물이 없고 그의 형 光璘도 內醫였던 것을 볼 때에 광현이 內醫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인 집안으로 들어오게

9) 大布는 거칠게 짠 삼베옷을 말한다.

10)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本貫은 豐壤, 호를 歸鹿, 鹿翁이라 하였다. 1719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교리를 거쳐 1730년 경상도관찰사로 나가 영남의 남인을 무마하고 饑民 구제에 진력하였다. 이어 좌의정이 되어 문란한 양역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軍額 및 군역 부담자 실제수의 파악에 착수, 이를 1748년 『良役實總』으로 간행하게 하는 등 군문, 군역의 감축, 양역재정의 통일, 여역세의 국고환수, 결포제실시 등을 그 개시책으로 제시한 경세가이기도 하였다. 당색을 초월하여 縉紳사이에 교류가 넓었다. 시호는 忠孝.

11) 羽林軍은 궁중의 宿衛를 담당하는 군대이다.

된 계기였던 것 같다.

정내교는 백광현의 침술에 대하여 지극히 정밀하고 뛰어나다고 하였다. 본래 의서나 경험방을 읽지 않았고, 오로지 침만을 써서 고쳤다는 것이다. 침을 잘 놓을 수 있게 되고 말의 병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자 사람의 종창에도 이를 시도해 보니 기이하게도 잘 들었다. 마침내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힘썼으며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종창을 앓는 사람들마다 치료해 주면서 그 종기에 대하여 그 치료술이 더욱 정밀해져갔으며 침술도 나날이 정교해졌다. 무릇 독기가 강하고 뿌리가 깊은 종기에 대한 치료법은 古方에도 나오지 않는다. 광현은 종기를 앓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큰 침으로 종기를 찌서 독을 제거하고 뿌리를 반드시 뽑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침을 너무 맹렬하게 사용하여 지나치게 많이 찌든다가 너무 깊이 찌른다가 하여 간혹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지만, 효험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 또한 많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날마다 그의 문앞에 모여들었다. 광현 역시 자신의 의술이 늘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나태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더욱더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해 명성을 크게 떨쳐 그는 神醫라 불리워졌고, 또 그의 인품에도 탄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神醫이며 御醫였던 白光炫이 현감으로 간 고을 백성들은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는가. 숙종조 초에 御醫로 선발되어 그 공이 인정되어 崇品되고¹²⁾ 관직은 현감에까지 이르렀다. 처음에는 康翎현감에 임명되었으나, 그의 수령임명이 미천한 출신이고 또 글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벼슬에 임명하여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대간들이 거듭 일어나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숙종은 끝내 윤허하지 않고 오히려 抱川현감에 임명하였다가 포천도 궁궐에서 너무 멀다고 衿川현감으로 발령을 내었다.

그러나 그가 원님으로 온 고을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겼다. 그는 병자를 만나면 귀천이나 친소에 상관하지 않았으며 병자가 부르면 즉시 달려갔고 달려가면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였고 또 환자가 좋아진 것을 본 후에야 안심하였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어의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랐었는데도 교만하지 않았다. 의술에만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타고난 원래 천성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즉, 명의로써 거기에 덕망까지 갖추었으니 그의 愛生人民의 거룩한 뜻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글을 배워서 혹은 학자로서 일생을 보내고 혹은 官界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출세하고 그리고 가문의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지극히 빈한하여 富나 권력의 힘을 빌지 아니하면 체통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 지위를 갖추고 유지하기 위하여 한단계 아래인 技術職인 중인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백광현은 별다른 스승없이 醫術에 專心하여 심오한 仁術의 경지를 이룩하였고, 그 醫術을 후손과 제자들에게 전하여 준 위대한 스승이기도 하였다. 물론 그 제자에서 빛을 발한 인물들은 없지만 아마도 아들 興齡과 朴淳은 醫家로서 이름을 남겼다. 특히 백홍령은 백

¹²⁾ 崇品은 종1품의 품계의 별칭이다.

광현의 제자요 아들이라는 학맥과 인맥으로 약원의 침의로, 특히 중기 치료법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그가 의관으로 성장하고 의가로서의 탁월한 의술을 지닐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백광현은 계급사회였던 전통시대에서는 천한 신분으로 각인되어 있는 醫人이다. 특히 그가 살았던 시대는 철저한 직업의 세습성이 확고한 시대였다. 이렇게 천대받는 신분으로 고난에 찬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백광현은 가진 것 없고 배고픈 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백성들의 의사요, 임금의 담당의로 평생을 살았고, 이러한 그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 일이 흔하지 않은 현실에서, 鄭來僑와 趙顯命의 애정어린 관심이 없었더라면 백광현의 삶의 행적은 자칫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우리의 기억에서 소멸되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趙顯命은 백광현의 생전에 체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의가 되기까지의 과정, 어의로서의 생활 뿐만 아니라 인간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V. 결론

역사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이 수없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의 일들이 일일이 기록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일상들을 적어 놓은 것들을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신기한 사회풍토 및 그 인물들에 대하여 여실하게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역사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야 할 자료들도 많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개인 문집 등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들 중에서 의가인물들의 행적을, 그 중에서도 우리 의학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을 모아 이야기식으로나마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학술논문 작성의 형식에 매여있거나, 평소 이 방면에 관심을 가져왔던 전공자에게는 새로운 것이 못 된다 할지라도, 이름없는 의가인물이나 경험방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잊혀져 가는 오늘의 이 시점에, 일단 소개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방대한 문집 속에 의학인물이나 의학적인 경험방에 관련된 기록들이 몇 줄 정도에 그치지만 이보다 소중한 자료는 없다고 믿는다. 그러한 점에서는 『지산집』이나 『耳溪集』이나 『완암집』에 의학적인 내용이 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기회가 닿는대로 앞으로도 무조건 번역을 해서 발표하려고 한다. 필자 나름대로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위 몇몇의 의학인물들의 행적을 파악하면서 18세기 당시의 의학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망할 수 있었다. 첫째는 당시의 의료 수준을 검토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이요, 둘째는 경험 처방이 오늘날의 의술 수준에 있어서도 역시 귀중한 참고자료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이요, 셋째는 의원들이 누구에게든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치료기술을 전수하고 전수받았으며, 또 나름대로 거기에 덧붙여 자신의 경험방을 축적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치명이 전한 장수와 양생의 비법은 밤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인데, 밤에

승능을 마시면 담을 성하게 만들어 목숨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양생법에 있어 가장 먼저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같은 증기를 치료하는 의사이지만 치료법은 달랐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김용갑은 종양의 치법에 대하여 和平簡易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였다. 칼로 찢고 침을 놓게 되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먼저 썩은 부위를 빨아내는 약을 쓰고, 이어서 새살을 돋게 하는 약을 쓰게 되면 종기의 고통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고 또 그 종양의 독기도 저절로 없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조광일과 백광현은 다양한 침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침으로써 응저를 찢서 치료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양호나 한치명 등을 통하여 양반사회에서 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개방적이었는가를 볼 수 있다는 점이고 또 그들이 말한 治病之術이야말로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治國之王道”라는 점이다.